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Pilgrim

§ 2016년 포어 §

주님, 우리로 화해하게 하소서  
(고후 5:18-21, 창 33:1-4)

† 행동 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seoulchurch.or.kr>

세상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이끌어 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 추석, 가족이 모여 함께 드리는 가족예배

예 배 순 서

인 도 : 가족중 어른

목 도	.....	다함께
성 시	.....살전 5:16-18.....	인도자
찬 송	..... 588장.....	다함께
기 도(또는 사도신경)	.....	다함께
성경봉독	.....엡 3:20-21.....	인도자
메시지	....."영광의 찬가".....	인도자
찬 송	.....559장.....	다함께
주기도	.....	다함께

### "영광의 찬가"

(에베소서 3장 20-21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365일이 모두 감사의 날이 되겠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한 감사의 날입니다. 감사의 기초는 기억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결실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영광의 송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 1.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 곧 성도의 무리 가운데 지금도 계시어 역사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삼으셨으며 백성으로 부르시사 다스리시고, 2016년의 지난 9개월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순종하며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선물이 무엇인가 보다는 선물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가 선물의 가치를 결정짓게 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은 창조주이시니 그 하나님의 위엄을 생각할때 아무리 작은 선물이라도 우리는 귀히 여겨야 할 것이며 지극히 작은 축복이라도 감사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에 혹 고통이 따르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 2.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눈에 보이는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은혜의 가치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말라"고 충고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있으나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없다면 은혜를 소홀히 여긴 결과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간 기도의 은총을 잘 활용했나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

첫째, 회개하여 거듭난 자로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하고

둘째,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며

셋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약4:4)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신 것,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까지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릅시다.

#### 3. 구한 것보다 더 풍성히 주셨음을 기억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하신 명령에 순종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부와 존영을 당대에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구했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보에서 메시야가 나오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되는 과분한 은혜로 채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던 모세에게 수많은 이적과 기사로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면 못 주실 것이 없습니다. 양치기였던 다윗에게 베푸신 영광은 그가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큰 것이어서 다윗은 "나는 누구며 내집은 무엇이 관대..."라고 감탄의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찌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에게만 국한 된 은혜이겠습니까? 우리 개인과 가정, 교회와 국가와 민족 위에 베푸신 풍성한 은혜와 복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것 중만한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본래 빈 손으로 이 세상에 왔음을 기억합니다. 무엇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비교 의식과 상대적인 생각 때문에 가난하다고 여기기 쉽습니다. 아무 것도 가질 자격이 없었던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둘째,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음을 기억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엡2:1)를 부활의 능력으로 놀라운 은혜로 후대하셨습니다. 모든 권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시116:7)

셋째,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합니다. 모든 것이 비록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실 것을 기억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 신천지 · 이단 관련 특강

1차: 9월11일(주) 찬양예배 시 / 2차: 9월 21일(수) 1부예배 시

우리교회는 탁지원 소장(현대종교 발행인)을 강사로 모시고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현시대의 이단·사이비 동향과 전략, 그리고 그 대처방안"을 주제로 신천지 · 이단 관련 특강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신천지를 비롯 한 이단들이 우리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작금

의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이번 특강에 많은 성도들이 참석하여 이단들에 대한 공부를 하고 대처방법을 배워 두기 바란다.

특별히 이번 특강은 녹음과 녹화를 할 수 없음을 성도들에게 당부 드린다.

## 2016년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범위: 히 11장, 롬 8장, 요일 4장

예선: 10월2일(주일)/ 본선: 10월14일(금) 오후7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사도적 교회를 지향하는 서울교회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실천하는 훈련의 일환으로 매년 성경암송대회를 통해 성도들의 삶에 말씀의 생활화를 구현하고 있다.

2016년도 성경암송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로마서 8장, 요한일서 4장이다. 이상 세 장 중에서 일부분이 아닌 전체를 암송해야 한다. 암송시간은 히 11장(5분), 롬 8장(4분), 요일 4장(3분) 총 12분으로 제한한다.

성경암송대회는 10월 2일(주일) 부서별 예선을 거쳐 10월 14일(금) 오후 7시 본선을 진행한다. 교육1국, 교육2-4국 그리고 영어암송부로 구분하여 각각 진행한다. 암송본문은 개역개정판 성경으로 하고, 영어번역본은 NIV(1984년 개정판)성경으로 한다. 이때 채점기준은 동일하게 적용한다.

예선은 10월 2일(주일) 부서별 장소에서 진행하며, 부서별 형편에 맞게 위원을 위촉하

여 심사하고 시상한다. 본선에 출전할 선발인원은 부서별로 5명 이내로 선발한다. 단체(팀)는 1명으로 간주한다. 단체(팀)의 구성원들은 서로 비슷한 분량을 암송하여야 한다. 본선등록은 10월 9일(주일)까지 교육위원회 소속 부서들은 서기 김광태 집사에게, 일반 장년 성도들은 사무국에 등록한다.

본선은 10월 14일(금) 오후 7시 601호(휴게실), 602호(교육1국-미취학), 603호(교육1국-취학), 606호(교육2-4국), 607호(영어암송)에서 4개 조로 나누어서 진행된다. 시상은 대상, 믿음상(금상), 소망상(은상), 사랑상(동상), 장려상으로 구분된다. 저녁식사는 제공되지 않는다. 시상 및 성경암송발표는 10월 16일(주일) 찬양예배 시에 대상수상자에 한하여 실시한다. 대상 외 믿음, 소망, 사랑, 장려상은 부서별로 예배 시에 시상 및 발표를 한다.

# 9월 정기당회 파행

지난 9월 7일(수) 오후 8시 30분부터 열렸던 9월 정기 당회가 다음날 새벽 3시까지 이어지다가 폐회 선언 없이 해산, 파행되었다. 이 날 당회에서는 신천지, 이단 관련 특강 실시의 건, 신천지, 이단 색출을 위한 설문 실시의 건, 교회 내 CCTV 교체 및 추가 설치 건, 고등부 지도교역자 사임 및 후임 지도 교역자 임명의 건, 부목사 및 교육 목사 연임 허락의 건, 노회 총대 장로 선임의 건이 결의 되었고 맹꽂이 책자와 관련한 청원 처리의 건과 영어예배부 인턴 채용의 건을 남겨놓고 파행되었다.

이 날 당회가 파행된 이유는 맹꽂이 책자와 관련하여 '서울교회' 이름을 불법 도용한 것과 서울교회와 당회와 성도들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였으므로 당회가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스테반인원(김광욱집사 외 5명)이 청원한 것에 대하여 장시간 토론 후, 장로들은 우선적으로 서울교회 이름으로 책자를 발간한 것은 분명하므로 이에 대해서 민형사상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안에 동의 제청 후 표결에 불릴 것을 요청하였으나 당회장은 더 알아보겠다며 표결에 불허하였다.

다수의 장로들은 책자를 발간한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명백한 도용이며 명예훼손이므로 먼저 표결에 불허 후 가결되면 그 후에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당회장은 끝내 표결을 거부하며 그 후 1시간 30분 동안 회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에 다수의 장로들은 1시간 30분 동안 회의의 진행을 하지 않는 당회장에게 더 이상 회의 진행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해산하려고 하는데, 당회장이 그러면 맹꽂이 책자의 장본인인 권\*\*집사를 만나서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고 했으며 당회는 폐회 선언 없이 해산됐다.

이 와중에 담임목사를 지지하는 장로부인 4명을 포함한 10여명의 여자 집사와 권사들이 당회실에 난입하여 당회장의 의견을 존중하라며 회의 진행을 방해했고, 당회실에 앉아 농성하며 퇴장 요구에 불응하다가 당회장의 권면으로 퇴장하였으나 경찰이 출동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는 서울교회 역사상 씻을 수 없는 오욕이며 서울교회 온 성도들에게 크나큰 모욕을 안겨준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당회의 권위에 도전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로 목과할 수 없는 행위이다. 이후로 당회는 이 같은 일이 다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 사건을 엄중히 다뤄야 할 것이며 온 성도들은 서울교회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도록 뜨겁게 기도해 주시기 바란다.

(편집부)

이종운 원로목사의

## 제자의 길

### 우리가 드릴 뜻 있는 예배

우리는 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하나?

#### 1. 하나님이 이미 우리 위하여하신 일들이 있기 때문이다

롬 12:1 초두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고 했다. 즉 그 앞에서 이미 바울이 말한 모든 것으로 총괄한 표현이다. 그는 죄인으로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스스로 자신을 도울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깨닫고 믿게 하셨다.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살게 하셨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당신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깨닫고 감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한다.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논리적인 것이 없다.

#### 2.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고 계신 일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의 구원은 과거 사건만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 경험도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계속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우리의 악한 습관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합당하다.

#### 3. 그 같은 봉사를 하나님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기 때문이다(롬 12:2)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뜻은 어렵고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그 같은 그릇된

생각을 고쳐주려고 사도는 하나님의 뜻의 성격을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정리한다.

#### 4.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할 대상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세세무궁토록 받으셔야 한다고 믿고 있는가?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합당하게 살아야 하지 않는가? 예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면 그를 위해 살지 못한 우리는 실패자 아닌가!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예배를 하나님께 또한 드려야 한다.

#### 5. 영적인 것이 최종적인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들은 모두 없어질 것이다. 하늘과 땅도 날아가 버릴 것이다(마 24:35).우리는 없어질 것을 바칠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바쳐야 한다.

짐 엘리웃은 그의 일기에서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을 얻기 위하여 지킬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오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자가 되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침으로 영원한 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다음 주 계속)



# 장애인의 기회제공, 호산나대학

호산나학교는 우리교회의 창립이래 한결같이 품어온 교회목표와 비전이 영근 가치적 열매 가운데 하나라 할 수 있다. 교회는 3대 교회목표 가운데 하나인 '빈약한자 구제'를 이루기 위해 쉽 없이 기도해 오던 기도 제목 중 구체화 된 열매다.

호산나학교는 단순한 복지시설을 넘어 장애인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를 맞보게 하고, 사회인으로서 정상인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잠재능력을

개발하고 자존감을 찾도록 도와주는 발전적 형태의 장애인교육기관을 지향하며 설립이 추진됐다.

호산나대학이 제창한 교육이념은 우리교회의 교육, 선교, 구제의 3대목표에 따라 지성과 영성 뿐만 아니라 신체의 발달을 도모하는 전인교육을 실시하고, 장차 미래통합 사회구현에 이바지하며, 장애인들이 주님의 사랑안에서 장애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여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다.

또 '지적장애를 가진 정신지체, 발달장애인의 고등교육의 기회제공'이라는 목적으로, '개개인의 특성과능력, 적성등을 살린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사회인을 양성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대학'이라는 대학비전을 제시하였다.

- 서울교회 20년사 『코람데오』 발취 -

## 호산나대학 - 요양보호사시험합격

### 발달장애학생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이동귀 집사 (호산나 대학 부학장)

본교 노인케어학과 강태우, 양재원, 박수진, 전준형 학생이 제 19회 요양보호사시험에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는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제정되면서 일정한 교육만으로 자격증을 쉽게 취득하였지만, 2010년 1월 노인복지법 개정 후 한국보건교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주관하는 국가 자격시험제로 변경되면서 발달장애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9일에 치러진 제19회 요양보호사시험에서 호산나대학 발달장애학생들이 당당히 합격하였습니다. 호산나대학에서는 2014년 이후

9명의 요양보호사 합격자를 배출하였습니다.

이번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에 성공한 4명의 학생들은 요양원, 병원 등에 안정적으로 취업해 성공적인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0순위 학생들이 되었습니다.

전준형(노인케어학과 졸업생)군은 "이번이 4번째 시험이었는데 지난 3번은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고 교수님과 부모님 응원 덕분에 이번에는 당당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후배들도 저 같이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해요"라며 소감을 전했습니다.

앞으로 발달장애인의 취업사관학교인 호산나대



학은 노인케어 특성화대학으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은 물론 산학연계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 호산나대학

### 감사합니다!

#### 오승중 부장 (호산나대학)

지난 9월 6일, 4분의 장로님들께서 호산나대학을 방문하여 환경미화 봉사활동을 해주셨습니다.

장로님들은 매년 봄과 가을 호산나대학내의 잔디깎기, 잡초제거, 고목정리, 시설보수, 점검 등을 해주셨는데 올해에도 환경미화와 기계실 시설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올해는 특히 심서현 학생이 땀흘리며 봉사활동을 하시는 장로님들을 보고 자신의 용돈으로 카페에서 커피를 사서 대접하여서 장로

님들을 기쁘게 해주었는데 학생들은 깨끗이 정리된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어 다니며 봉사해 주신 장로님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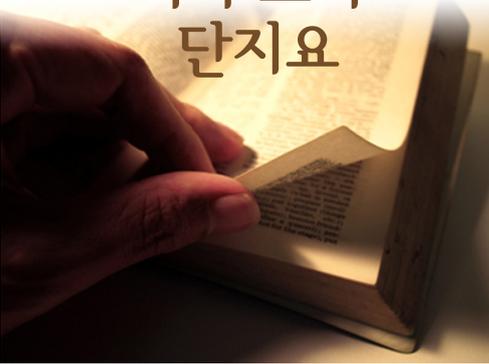
항상 호산나대학을 보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호산나대학 교직원들은 서울교회 성도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호산나대학 학생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는 자립적인 성인으로 키우는데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016 성경암송대회

#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김진달 집사  
(7교구)

한 달여를 앞 둔 2016년 성경 암송대회를 준비하면서 말씀과 함께 변화된 지난 날 저의 삶과 신앙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젊은 날 예수님을 믿는 조건으로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의무적으로 교회에 가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집사의 직분도 받았지만 사실 교회 밖에서는 명절 때 제사상에 절도 하고 술, 담배를 하는 등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거짓된 모습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었

고, 그로 인해 이상승배를 멈추고 금연금주도 하였으며, 그 어떤 세상의 유혹이 올 때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저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쳤기에 성경암송이 주는 참된 기쁨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올해도 저는 하루, 한 주, 한 달 이어가는 삶 속에서 늘 새롭게 다쳐오는 여러가지 시련과 고통을 마주했지만 말씀 암송을 한 절 한 절을 이어나가면서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되신 말씀을 되내일 수 있었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힘으로 시련과 고통을 극복하며 감사와 평안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시119:103) 이 시편 구절처럼 말씀의 꿀처럼 단 맛을 알게 되었고, 계속해서 말씀을 찾게되는 제 모습을 보며 다시금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이 주는 감사와 평안을 저 혼자 누리기보다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젊은 세대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서울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성경암송대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가까워지고 고난과 시련이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 극복해나가는 모습을 그리며 기도합니다. 저의 모든 감사와 평안 가운데는 항상 말씀이 있었고, 성경암송을 통해 그 말씀과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이제 성경암송대회까지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함께 성경을 펼쳐 한 구절이라도 함께 암송해보는 것은 어떤가요?

단 한 구절을 암송하더라도 분명 그 가운데서도 말씀의 놀라운 능력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감사와

평안을 느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앞으로 성경암송이라는 좋은 잔치에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시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채우실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에게 이런 감사와 나눔의 글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해주시고 이 뜻난 죄인을 늘 아낌 없이 사랑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감사를 드리며 이 글을 마칩니다.

## 특별 찬양

오늘 찬양예배 특별찬양은 은빛찬양대(대장:이관규 장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박래경 집사의 지휘로 "깨뜨린 옥합(이현철 편곡)", "힘써 일하라(Lowell Mason곡)", "주 안에 하나되어(Don Besig곡)를 합창하며, 오르가니스트 김현정 집사, 피아니스트 홍혜란 집사 그리고 팀파니에 이기쁨 선생님, 트럼펫에 김남철 선생이 함께 연주한다.

## 동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2일(월) 미국 뉴욕, 뉴저지 지역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 뉴욕 뉴저지주 상임대표단의 예방을 받는다. 20일(화) 아시아로잔 지도자 모임을 갖는다. 21일(수) 북핵폐기천만인서명운동 워싱턴DC 촉진대회, 22일(목) 뉴욕, 뉴저지 촉진대회 23일(금) 시카고 창립대회, 24일(토) 북가주 창립대회, 25일(일) LA에서 한반도 통일과 미국을 위한 구국기도회에서 대규모집회를 갖고 설교한다. 26일(월) 미국 전지역 창립대회를 연합으로 갖고 귀국한다.

■ 박사학위 취득 : 12교구 서원지성도(서상근집사, 김예환권사 딸) 피츠버그 대학교 (Ph.D Chemistry, Nanomaterial)

■ 주일식당봉사 : 리브가전교회 (9.11) 한나전교회 (9.18)

■ 금주의 식사제공 : 교회제공

## 부목사 및 교육목사 연임

우리교회 당회는 지난 9월7일(수) 개최된 정기 당회에서 부목사 및 교육목사 연임투표를 실시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전원 연임되었다.

## 정대는 교육목사 고등부 지도교역자로



정대는 교육목사

우리교회는 고등부를 지도하던 천세종 교육목사가 개인사정으로 사임을 함에 따라 후임 지도교역자로 정대는 교육목사를 임명하여 고등부 학생들을 지도하도록 하였다.

## CCTV 교체 및 추가설치

우리교회는 성도들의 안전과 보안 그리고 이단 침투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당내에 설치한 기존의 CCTV가 화질이 떨어지는 한편 기계가 노후되었으며 보안이 미비한 구역이 나타나고 있어 기존 CCTV를 교체하고 추가로 설치하기로 하였다.

## 기사 정정

8월 28일자 새가족등록 절차 개선 방안 중 전입 교인인 경우 이전 출석교회에서 이명증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한 것은 현재 보류 중이다.

9월 18일자 순례자는 추석연휴로 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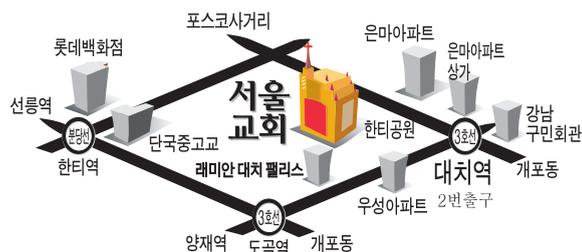
## 서울 주간기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에 한 과정 이상씩 참여하여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하옵소서.
2. 다락방 모임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가 응답되게 하옵소서.
3.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 이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 당 II, III, IV 층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양예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15분	
	젊은이예배	오후 2시	
수 요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11시	본 당 II, III 층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본 당 II 층	
금 요 기 도 회	오후 8시	본 당 II 층	

### ■ 교회 오시는 길



### ■ 서울교회QR코드

